

청소노동자의 작업조건과 건강영향 분석

Analyse des conditions de travail des agents du
nettoyage et de leurs impacts sur leur santé
프랑스 식품·환경·작업위생국가안전청(ANSES), 2025년 10월



번역·정리 대외홍보국 김효진 차장

편집자 주 본 보고서는 프랑스어 원문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에서 통용되는 영어 표현이나 일부 용어·맥락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원문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번역 시 표현을 가능한 한 그대로 옮겼음을 알려드립니다.

프랑스가 먼저, 우리가 늘 결눈질하던
'보이지 않는 노동'을 정면으로 마주보고 있다.

프랑스 식품·환경·작업위생국가안전청
(ANSES)이 2025년 10월 발표한
<청소노동자의 작업조건과 건강영향 분석>
보고서는, 여성·이주·시간제·외주화·야간노동이
겹쳐 있는 청소노동이 다른 직종보다 더 아프고
더 빨리 일터에서 밀려나는 직업임을
국가 차원에서 공식화했다.

보고서는 반복·고강도 작업, 세정제·소독제·
표백제 등 화학물질과 세균·바이러스 노출,
잘게 쪼개진 새벽·야간 근무, 고립된 작업환경이
근골격계·호흡기·피부질환뿐 아니라
우울·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로 이어지는
구조를 짚었다. 또한 외주 경쟁 속에서
청소시간은 줄고 작업면적은 그대로인 현실,
그리고 발주처와 용역업체 사이에서
책임이 흐려지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.



1. 보고서 개요

㉠ 목적

- 청소노동자가 어떤 작업조건과 위험요인에 노출되는지 전반적으로 분석
- 그 결과가 신체·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리
- 이를 바탕으로 산업보건·정책·현장 예방대책에 대한 권고 제시

㉡ 대상 범위

- 주로 사무실, 건물 공용공간, 복도, 화장실 등 '일반 오염' 환경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
- 병원·실험실처럼 특수 유해물질·감염 위험이 높은 곳, 방사선 취급 장소, 가정집 청소는 범위에서 제외

2. 청소노동자 집단의 특징

규모 : 약 120만~140만 명(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5%)

성별 : 여성 73.5%

이주배경 : 이민자·외국 출신 비율 약 20%

평균 연령 : 45.3세

고용형태 :

- 시간제(part-time) 비율이 매우 높음
- 다중 고용(여러 사업주), 다중 작업장(여러 건물 이동) 구조
- 시급은 최저임금 수준이나 근로시간이 짧고 분절되어 월 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경우 다수

건강상태 :

- 본인이 느끼는 건강 수준이 다른 노동자 집단보다 더 낮음
- 만성질환·기능제한·우울·불안 등 더 빈번하게 보고됨

노조·대표성 :

- 노조 가입률 낮음
- 외주·파견 구조로 인해 현장 조직화·대표성 확보 어려움

3. 주요 위험요인

육체적 부담, 유해물질 노출, 시간적 불규칙성,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겹치는 직업

㉑ 작업 자체에서 오는 신체적·화학적 위험

1) 신체적 부담

- 반복적인 밀기·댕기·들기·비트는 동작, 구부린 자세·팔을 들어 올린 자세 등
- 큰 면적을 단시간 안에 처리해야 하는 고강도 전신 작업. 그 결과 근골격계질환(TMS) 발생률이 프랑스 전체 노동자 평균보다 거의 두 배에 이른다는 분석

2) 화학·생물학적 노출

- 세정제·살균제·표백제 등 수천 종의 물질 혼합 사용
- 자극·부식성 물질, 피부·호흡기 감작성 물질, 일부 발암·돌연변이 유발 물질(예: 포름알데히드) 등 포함
 - 가) 역학연구에서 수준 높은 근거로 확인된 영향
 1. 직업성 천식
 2. 피부염(습식 작업 + 세제 노출)
 - 나) 가능성이 제기된 영향
 1. 만성폐쇄성폐질환, 비염
 2. 방광암, 폐암, 두경부암, 백혈병
 3. 임신 중 노출과 관련된 조기분만, 저체중, 선천성 기형 등

3) 생물학적 위험과 이동 중 사고

- 화장실·공용공간·학교·요양시설 등에서 세균·바이러스·곰팡이에 노출
- 여러 작업장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일반 노동자보다 높음

㉒ 조직·시간 구조에서 오는 위험(외주·시간제·야간노동)

보고서는 조직과 고용구조 자체가 건강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하게 강조한다.

1) 분절·야간·새벽 노동

- 새벽(출근 전)·야간(퇴근 후)에 1~2시간씩 일하는 조각난 스케줄

- 하루 실제 출근 준비·이동·대기시간은 긴데, 임금으로 인정되는 시간은 짧음
- 이런 일정은
 - 가) 수면장애, 심혈관질환 위험 증가
 - 나) 식사·생활리듬 파괴
 - 다) 우울·정서불안 등 정신건강 악화와 연관

2) 높은 작업강도와 촉박한 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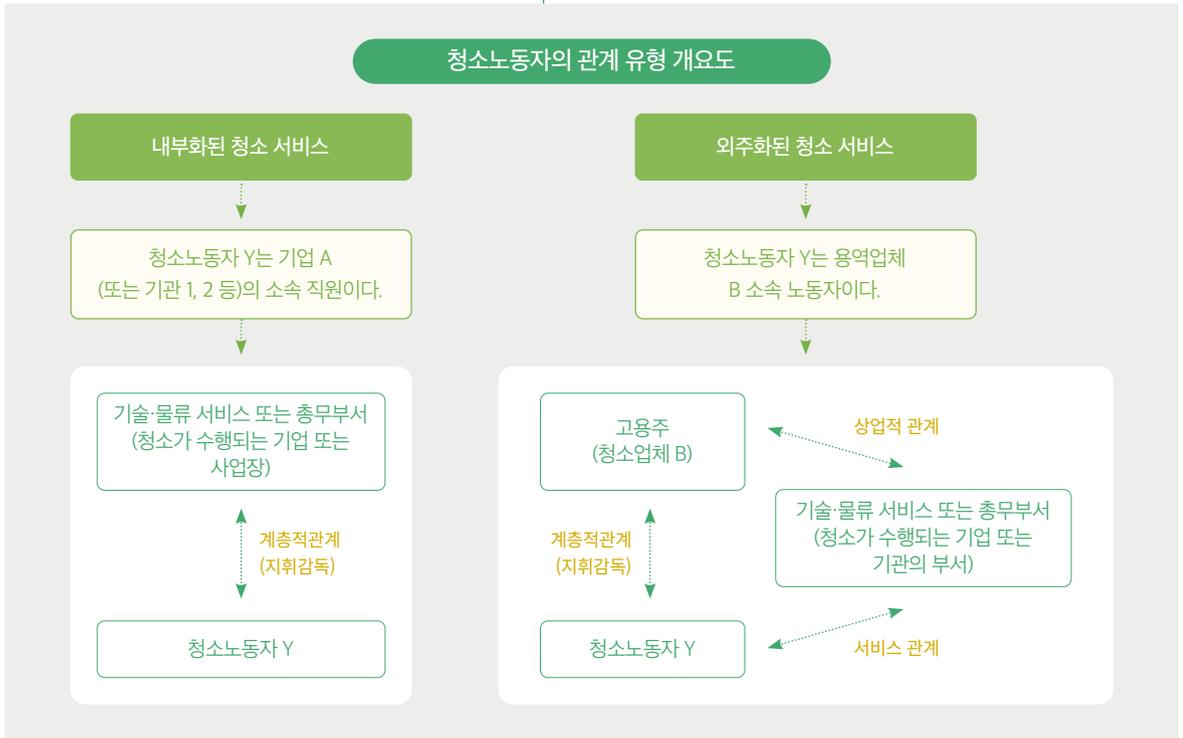
- 입찰·외주 경쟁이 심해지면서 청소시간은 계속 줄어들고, 반면 면적과 업무량은 그대로 유지 되어 작업강도가 더욱 높아짐
- 발주처는 '깔끔한 결과'만 요구하면서 투입 인력과 시간은 최소화하는 경향이 강해, 그 결과 사고와 근골격계질환이 증가하고, 동시에 "제대로 일할 수 없다"는 직무 스트레스가 커짐

3) 고립된 작업

- 혼자 일하는 경우가 많고 건물 이용자와 접촉이 거의 없음
- 휴게·탈의 공간 부족 또는 협소
- 사회적 낙인("더럽고 하찮은 일")
 - 가) 무시·모욕 경험
 - 나) 직무 자존감 저하
 - 다) 예방조치 요구를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

4) 외주화·용역화 구조의 문제

- 청소업무 외주 비율(민간 기준)이 1982년: 23% → 2020년: 65%로 크게 증가
- 이 과정에서
 - 가) '청소만 하는' 직무로 강한 분업·전문화
 - 나) 월 노동시간·소득 감소, 작업강도는 상승
 - 다) 발주처-용역업체-노동자 사이에 책임이 분산되며, 건강·안전 문제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개선해야 하는지 모호한 구조 형성



4. 재해·질병 데이터

다른 직종보다 더 아프고, 더 많이 다친다

① 산업재해 및 직업병

- 다른 대부분의 업종보다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높음
- 특히 근골격계질환이 전체 노동자 대비 약 2배 수준

② 업무불능으로 인한 해고

- 프랑스 전체 평균보다 약 2배 많음

③ 정신건강

- 불안·우울·수면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빈번
- 직무스트레스·고립감·불안정한 고용이 결합한 결과

5. ANSES의 핵심 권고

- **연구·감시 강화** : 만성질환·직업병과 외주·다중고용 구조의 건강영향 파악을 위한 전담 연구·데이터 수집 확대
- **외주·근로조건 개선** : 외주 재계약 시 건강영향 평가 강화, 발주처 책임 확대, 야간·분절 노동 축소, 주간 연속근무·최소 근무시간 상향
- **작업강도·유해요인 저감** : 건물 설계·계약 단계에서 청소하기 쉬운 환경과 적정 인력·시간을 보장하고, 덜 유해한 도구·약품 사용으로 신체 부담·화학물질 노출 최소화
- **공동 책임과 접근성 강화** : 산재 부담을 발주처와 용역업체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 검토, 청소노동자 특성에 맞춘 건강검진·교육·정보 제공 확대
- **직업생애·전직 지원** : 신체 소모가 빠른 직종의 특성을 고려해 직무 전환 교육·경력 개발 등 다른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제도 마련 🐦